

광주 지자체들은 '악취와의 전쟁 중'

하수·축산악취 민원 올해만 754건...북구, 신안교 주변 악취 정비공사 동·남구 '악취지도' 만들고 스마트 하수관로 악취 저감시설 등 대책 고심

최근 광주시 동구 충장로 일대에 높이 2m짜리 노란 색 사각기둥이 등장했다. 사방이 막혀있는 구조인데다 동구청 로고가 붙어있을 뿐 별다른 설명도 적혀있지 않은 이 기둥은 '스마트 하수관로 악취저감시설'이다. 낡은 하수관로에서 악취가 지속적 자치구에 따르면 5개 구청을 통틀어 매년 400여건에 달하는 생활악취 민원이 접수됐다. 연도별로는 2019년 474건, 2020년 430건, 2021년 498건, 2022년 363건이다.

올해 접수된 민원만 현재까지 754건에 달한다. 북구가 49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광산구 153건, 서구 51건, 남구 32건, 동구 24건 순이었다.

특히 동구와 남구에서는 생활악취와 별개로 하수 악취에 대한 민원이 잇따랐다. 동구청에 접수된 하수 악취 민원은 지난 2019년 95건, 2020년 100건, 2021년 32건, 2022년 133건으로 코로나19팬데믹 때를 제외하고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광주시 남구 또한 같은 기간 25건의 하수 악취 민원이 제기됐다.

각 지자체는 악취 민원 빈발 지역을 중심으로 문제 해결에 나섰다. 광주시 동구·남구청은 지난해 1월부터 환경부 '악취

저감 스마트 하수관로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2025년 12월까지 악취가 심한 지역을 분석해 '악취지도'를 만들고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동구는 총사업비 168억원을 남구는 144억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

동구는 지난 11월 맨홀·하수유입구 등 901곳의 황화수소·암모니아 농도를 조사해 악취지도를 구축하고, 이달 들어 악취가 심한 5개 지역에 악취저감시설을 시범적으로 설치했다.

설치 장소는 충장로 1가 스타벅스 앞, 대성학원 뒤, ACC 제2주차장 인근 횡단보도 등 세 곳으로 3가지 종류의 악취저감시설이 설치됐다. 동구는 웨딩거리, NC백화점 앞 등 두 곳에도 시설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악취저감시설은 하수도에서 나온 기체에 자외선(UV)을 쬐어 악취 요인을 제거하는 '광화학적 산화' 방식과 기체를 금속산화물 촉매에 반응시키는 '흡착분해' 방식, 소량의 오존을 투입해 화학적 반응으로 악취를 제거하는 '플라즈마' 방식 등 기술이 적용됐다. 액상 촉매를 이용하는 방식과 기체를 활성탄 등에 통과시키는 방식도 적용 예정이다.

광주시와 북구는 최근 북구 신안동 신안교 주변 하수 악취 민원 해결 위해 '신안교 주변 하수 악취 정비공사'를 실시했다. 신안교 일대는 지난 1985년부터 용봉천·서방천에서 흘러오는 우·오수가 한 데 모이는 곳으로 악취 민원 빈발 지역으로 꼽혔는데, 38년여만에 악취 문제 해법에 나선 것이다.

1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신안교 일대에 악취 밀폐

를 위한 구조물과 차단막을 설치해 악취가 퍼지는 것을 막는 사업이다. 올해 말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된다.

북구는 또 육류 도축업체에서 발생한 악취로 운암·매곡·용봉동 일대에서도 쏟아지고 있는 민원(9월 11일자 광주일보 7면)에 대해서도 팔을 걷어붙였다.

이 곳에서는 동물 내장 등을 발효해 가루로 만드는 폐기물 재활용시설이 고장나면서 최근 악취가 심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악취 조사 결과 기준치 20(공기희석배수)을 초과한 30이 나와 올해 12월 15일까지 개선 공사가 내려진 상태다. 지난달 21일에는 이곳에서 배출한 폐수가 기준치를 초과해 조업 정지와 초과배출부담금이 부과되기도 했다.

광주시와 북구는 지난달 18일 악취 관련 시·군 TF팀을 구성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한 주민 의견수렴에 나섰다.

지난 10일 연제·양산동 주민 60명 가량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17일에는 운암3동행정복지센터에서 운암동 주민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한편 남구는 동구와 동시에 환경부 '악취저감 스마트 하수관로 선도사업'에 선정됐음에도 사업 추진 1년 9개월이 지난 지금도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남구는 지난해 11월 악취 지도를 완성한 뒤, 올해 3월부터 악취저감시설 구축방안 검토 및 사업물량, 사업유지 등을 검토를 시작했으나 7개월 넘게 답보 상태다.

남구 관계자는 "동구는 각 시설 업체에서 홍보 목적으로 시범설치를 건의했지만 남구는 제안이 들어오지 않아 시범설치 사업을 못하고 있다"며 "내년에 예산이 배정되면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17일 광주시 동구 충장로 1가 하수구에 노란 기둥 모양의 악취저감시설이 설치돼 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여수 허벅지 돌찍기 살인' 배후자 혐의 인정

가스라이팅으로 서로 폭행케 해 광주지법 순천지원서 첫 재판

여수시 자동차전용도로 졸음쉼터에서 최근 발생한 '허벅지 돌찍기' 살인사건의 배후자인 30대 남성이 17일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정훈)는 살인, 중감금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1)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사 측 공소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29일 여수시 엑스포대로 자동차전용도로 졸음쉼터에 주차된 차량에서 피해자 B(31)씨와 C(30)씨에게 서로를 때리도록 지시해 숨지게 하고 중상을 입혔다. B씨는 폭행 부위 피부 과상에 의한 패혈증으로 숨졌고, C씨도 같은 증상으로 6개월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18년 1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신용정보 전담 관련 직원(채권추심원)으로 근무를

하던 중 피해자들을 알게 됐다.

A씨는 피해자들이 민사소송 등 개인적인 문제로 고민할 때 법률 정보 제공을 빌미로 수익원대 빚을 만들어냈다.

그 빚을 갚으라며 수시로 이뤄진 폭행 탓에 심리적인 지배(가스라이팅)까지 당한 피해자들은 A씨의 지시로 차 안에 갇힌 채 서로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무기력감, 두려움, 공포, 신체적 고통에도 불구하고 A씨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다.

이날 재판에서 A씨의 변호인 측은 모든 혐의에 대해 인정했다.

변호인 측은 "범행 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다만 검찰로부터 최종 증거 목록을 받지 못해 피고인과 상의 후 다음 기일에 밝혀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11월 7일 오전 10시 1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5·18 왜곡 전광훈 목사 봐주기 녹장 수사 질타

이형석 의원, 경찰청 국감서 지적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한 혐의로 고소당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해 경찰이 봐주기식 녹장 수사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형석(광주 북구) 국회의원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16일 이뤄진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한다며 전 목사 고소 사건을 (광주 북부경찰서에서) 서울 중앙경찰서로 이관했으나, 녹장 수사로 일관하다 국감을 3일 앞두고서야 첫 조사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경찰은 3차례 출석 요구를 하는 등 조사 시기를 조율했다고 하지만 누가 봐도 전 목사의 편을 봐주며 수사를 의도적으로 지연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며 "전 목사에 대한 수사는 5·18 왜곡을 근절하는 데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경찰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전 목사는 지난 4월 27일 광주시 북구 광주역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5·18은 북한 간첩이 선동한 폭동'이라는 등 5·18 왜곡 발언을 쏟아냈다가 5·18 단죄로부터 고소당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수사 기밀 유출한 검찰 수사관 구속영장 청구

뇌물수수·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검찰이 사건 브로커 청탁을 받아 수사 기밀을 유출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광주지검 목포지청 수사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김진호 부장검사)는 뇌물수수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목포지청 소속 A수사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수사관은 지난해 광주지검에 근무하면서 전남 지자체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압수수색 청구·발부 사실을 사건 브로커 B(62)씨에게 알려주고 2000여만원의 뇌물과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압수수색 등 강제수

사를 거쳐 A수사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사건 브로커 B씨는 공범과 함께 지난 2020년 8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C(44)씨 등에게 13차례에 걸쳐 사건을 잘 해결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18억 5400만원 상당을 받아 행기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재판을 받고 있다.

C씨는 명작 미술품 등의 대체불가토큰(NFT) 투자자들을 모집해 22억여원을 투자받아 일부를 가로챈 혐의(사기·유사수신행위 등)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향후 다른 검찰 수사관과 경찰 연루자, 지자체 공사 수주에 비위 등 성씨와 관련된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제29회 정읍시민의날
제34회 정읍시문화제

2023.10.28(토) ~ 29(일) / 2일간
정읍사공원 일원

10.28(토)
채수의레
여인제례

부도여인상 시상

10.28(토)
개막식

김용임, 진성
방서희, 문희옥
파스텔걸스

10.29(일)
정읍사가요제

김태연, 박상철
김아름, 유지니

10.29(일)
KBS
전국노래자랑

조항조, 김혜연
박현빈, 트윈걸스
송민준

주최·주관 정읍시 (사)정읍사문화제 제전위원회
문의 (사)정읍사문화제 제전위원회 T.063)532-8880

2023년도 정읍시 정읍사문화제행사 보조금으로 제작